

실업급여 사상 첫 1조원 돌파...작년보다 34% '급증'

5월 수혜자 68만명 달해...코로나19 실업 영향 고용보험 가입 1.1% 증가 그쳐... '역대 최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자 급증 여파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구직급여를 타간 이들의 숫자는 사상 최대인 68만명에 달했고, 1인당 지급액은 평균 150만원이었다.

8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5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587억원)과 비교해 2757억원(33.9%) 늘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들어 구직급여 지급액은 1월 7336억원, 2월 7819억원,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연이어 돌파해 왔다.

이는 4개월 연속 최대치 경신이라는 조유의 기록이다.

고용보험 가입 증가,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한선 인상 등 정부의 고용안정망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과 코로나19 고용충격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이로써 올 1~5월 구직급여 지급 누계액은 4조4244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수혜자 역시 사상 최대인 67만8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50만3000명)보다 17만5000명(34.8%)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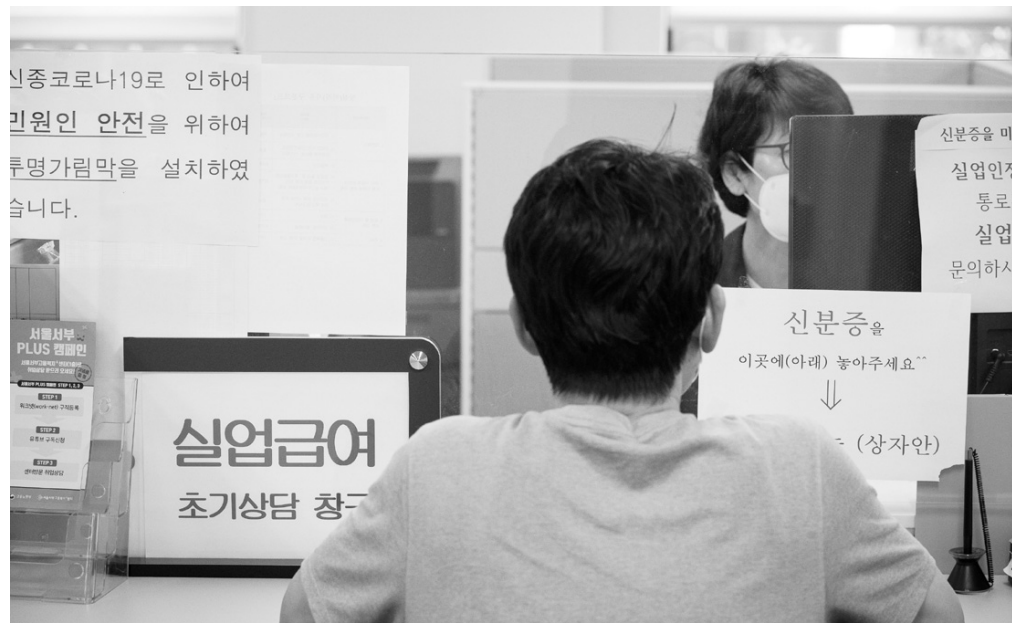
앞서 구직급여 수혜자는 1월 57.5만명, 2월 57.8만명, 3월 67.5만명, 4월 72.3만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바 있다.

코로나19로 실직이 늘면서 실업급여를 타가는 이들의 숫자도 덩달아 늘는 추세로 분석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년 전보다 2만6000명 증가한 11만1000명이었다. 이 역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도 이래 5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산업별로 제조업(22.2만명), 도소매(14.4만명), 건설업(13.5만명), 사업서비스(11.9만명)에서 주로 신청했다.

수혜자 1인당 지급액은 평균 149만90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50만8000원)보다 약간 낮은 액수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을 구성하는 실업급여 계정 지출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사상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5000명(1.1%) 증가에 그쳤다. 이는 5월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지난해 4~10월만 해도 50만명 이상의

증가폭을 누려왔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반절 넘게 꺾인 것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가 9만명이 감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이 신규채용을 축소 또는 연기하는 현상은 5월에도 지속됐다"고 말했다.

다만 권 실장은 "지난 2~3개월과 비교하면 고용보험 증가폭 둔화세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정부의 고용유지노력 등을 통해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수도 크게 감소했고, 일부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전반적인 추세의 둔화세는 다소 진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3월 25만3000명 증가에서 4월 16만3000명 증가로, 증가폭이 한 달 만에 10만명가량 대폭 축소된 바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제조업(-5.4만명)이 작년보다 추세적 둔화 흐름을 지속하며 감소폭이 외환위기('98년 1월 -10만) 이후 최대로 확대됐다.

서비스업(19.4만명)도 도소매, 숙박음식 등 대부분에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가꾸로 증가폭이 확대된 업종은 공공행정, 보건복지였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와 상실자는 서로 비등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4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 감소(-15.7%)를 나타냈다. 상실자는 43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9000명 감소(-15.5%)를 기록했다.

권 실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일단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이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TF를 초청,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 "코로나 종식까지 고용유지 지원 수준 현행 유지해야"

"숙련인력 유지 위해 현행 1일 6.6만원→7.5만원으로" 고용부 "고용보험기금 재정 어려워...사회적대화해야"

중소기업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올리고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종식까지 현행 지원 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난 등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TF를 초청해 개최한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유럽·미국의 경기침체로 제조업과 수출업의 위기가 이제 시작된 만큼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충격으로 경제와 고용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뒤야 한다"며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자로 보호받기 보다는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현행 1일 6만6000원, 월 198만원의 고용유지지원 한도로는 임금이 높은 숙련인력 고용유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1일 7만5000원, 월 22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로 끝나는 90%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갑 한국융합기업협회 이사장은 "장기근속자가 많은 뿌리기업은 (고용유지에) 부담이 크다"며 "제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현재 지원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을 운영하면서 (지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다 보니 최근 기금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다음 갈아서는 기한을 연장해 드리고 싶지만 재정난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정 보강이 같이 되지 않으면 (연장)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며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진행 중인데 고용유지와 관련된 여러 내용도 안전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합의할지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더해 △2021년 최저임금 동결 △유연근로시간제 입법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및 고용자 계속고용지원 확대 △외국인력 고용비용의 합리적 개선 △뿌리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기부양·일자리 창출 정책과제 총 12개를 건의했다.

농식품부, 여름철 폭염 농업재해대책 수립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기상정보·대응요령 신속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10월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각 지자체와 함께 축사, 비닐하우스 배수장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농업재해 담당자 비상연락망을 정비했다.

아울러 올해 시행 중인 배수개선사업 127개 지구 가운데 68개 지구는 우기(雨

期) 이전인 6월말까지 조기 완공해 침수피해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폭염 영향을 많이 받는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인상농가 폭염예방 제작해 배포하고 가축 폭염예방 집중 홍보활동 전개한다.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송풍팬·온습도 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한 70세 이상 농업인 돌봄서비스도 실시한다.

오유나 기자

세계식량가격지수 17개월만에 최저치

4개월 연속 하락 속 전월비 1.9% 하락...설탕만 상승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62.5포인트(p)로 전월(165.6p) 대비 1.9%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식량 수요가 감소한 반면 공급은 증가하면서 지난달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4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181.5p에서 올해 1월 183.0p로 오른 뒤, 2월 179.5p → 3월 171.1p → 4월 165.6p → 5월 162.5p로 내림세를 보였다.

품목군별로 보면 곡물·육류·유제품·유지류 가격이 줄줄이 하락했고 설탕 가격만 상승했다.

곡물은 올해 4월(163.7p)보다 1.0% 하락한 162.2p를 기록했다. 주요 곡물 중 쌀 가격은 상승하고 밀과 잡곡 가격은 하락하

면서 전반적인 곡물가격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했다.

쌀 가격은 주로 자포니카쌀과 바스마티 쌀 가격 상승에 따라 전월 대비 1% 올랐다. 인디카쌀 가격도 환율 변동과 필리핀·말레이시아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밀 가격은 전월 대비 약 2% 하락했다. 북반구 지역의 밀 수확 시기가 도래하면서 국제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 가격 역시 공급량 증가와 사료와 바이오 연료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특히 미국산 옥수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6%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육류는 올해 4월(169.3p) 대비 0.8% 하락한 168.0p였다. 이는 5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돼지고기·닭고기 가격은 하락 추세다. 동아시아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수입 수요는 소폭 증가한 데 비해 주요 수출국의 공급량이 넘치는 탓이다.

김민정 기자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픈 기업 '카카오'

삼성전자·네이버·CJENM·대한항공 순

카카오가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뽑혔다.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대학생 1045명을 대상으로 '2020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카카오(응답자 14.2%)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어서 △삼성전자(9.4%) △네이버(6.4%) △CJ ENM(4.8%) △대한항공(3.2%) △현대자동차(2.9%) △아모레퍼시픽(2.8%) △LG생활건강(2.7%) △CJ제일제당(2.6%) △SK이노베이션(2.0%) 등의 순이었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 4위로 첫 TOP10에 진입했지만, 이후 2년 동안 10위권 밖으로 밀렸다. 하지만 올해는 10위권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넘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대학생들이 카카오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로 '성장·발전 가능성과 비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 조사 시작 이래 2013년까지 10년 연속 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계속 TOP10 안에서 순위 변동을 거듭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10위권 안에 들면



서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계속 꼽고 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올해는 언택트 시대의 선호기업에 대해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며 "네이버의 선공에 이어 카카오가 역공을 했다는 점은 올해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